

사컴의교회 다락방공과

낮선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사귀는

사컴의
교회

사권의교회 다락방 공과

낮선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지은이 | 유병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사귀는
사권의
교회

CONTENTS

들어가는 말	6
1과 바벨론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 단 1:1-9	12
2과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대답 단 2:17-24	18
3과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단 3:13-18	24
4과 하늘에 닿는 나무는 없다 단 4:13-18	30
5과 다 알고도 아직도 단 5:22-28	35
6과 바로 지금입니다 단 6:6-10	40
7과 짐승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 단 7:1-14	46
8과 성도의 노래 단 7:23-8:4	52
9과 이런 기도자 어디 없습니까? 단 9:17-19	58
10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단 10:15-19	63
11과 다니엘의 글로리 단 11:27-32	68
12과 다음 다니엘 단 12:1-13	74

풍성한 다락방을 위한 가이드

1. 다락방의 모델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다락방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2. 다락방 교제 예습을 해야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관찰 및 생각하기, 묵상과 적용 문제로 미리 자신을 돌아볼 때, 다락방 나눔의 은혜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3. 다락방 나눔은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경연구모임으로 흐르거나 한 주간의 삶만 나누면 어떤 영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달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4. 다락방은 관계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다른 성도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넓어질수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5. 다락방 나눔 시, 나눔을 하시는 성도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경청할 때, 서로의 마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공과 나눔 시간 뿐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다락방 시간입니다. 가능하시면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다락방 서약서

우리는 다락방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에 함께 서약합니다.

1. 우리는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교제하되, 주님께서 우리 순장을 다락방의 인도자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며 순장을 따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우리는 다락방 모임을 통해 주님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며, 세속적인 교제(술, 도박, 불건전한 오락 등)를 금하고, 거룩한 교제에 힘쓰겠습니다.
3. 우리는 다락방 가족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결석과 지각을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4. 우리는 다락방 모임 시 말씀을 나눌 때 누구든지 혼자서 말을 독점하거나 끼어들지 않고 모든 순원이 함께 골고루 나누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5. 우리는 다락방 안에서 나눔 개인적인 고백이나 약한 부분을 남에게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우리는 다락방 모임에서 교회의 하나 됨을 세워 가는데 덕이 되지 않는 논쟁이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7. 우리는 순원 상호 간에 어려움을 나누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불필요한 오해나 교제의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꾸거나 꾸어주는 일 등 일체의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으며, 다단계 판매 등 상업적인 거래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다락방명: _____

성명: _____

들어가는 말

다니엘서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주전 6세기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조금의 소망도 품을 수 없는 현실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니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니엘서의 기록과 관련해서 다음 3가지 사실에 동의합니다. 첫째, 다니엘서는 구약성경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둘째, 다니엘서는 헬라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셋째, 다니엘서는 주전 2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현재의 모습과 같은 최종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술(口述)로 전해지던 다니엘의 경험과 예언이, 이 시기에 문서형식으로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에 동의한다면, 다니엘서라는 성경을 처음 읽은 독자들은 다니엘서의 배경처럼 바벨론의 지배가 아닌, 주전 2세기경 시리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의 최초 통치자는 안티오커스 3세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 대해 세금을 많이 부과했던 것 말고는 꽤 관참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후계자인 안티오커스 4세가 문제였습니다. 첫째, 안식일을 금지시켰고, 둘째,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바꾸어 버렸으며, 셋째,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우상의 제물, 부정한 음식을 강제로 먹도록 명령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성경을 없애 버리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악인 중의 악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안티오커스 4세를 가리켜, 주전 2세기의 ‘아돌프 히틀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의 첫 번째 독자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약 400년 전 이야기인 다니엘서를 읽으면 읽을수

록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전 6세기의 이야기를 넘어,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무려 2,6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읽어도, 오늘의 이야기로 읽히게 됩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믿음을 지키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나 ‘안티오커스 4세’ 같은 악인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고, 존재하는 모든 시스템과 질서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무척이나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바보 같은 모습이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다가는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무섭게 압박지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강력히 외칩니다. 그런 극단적인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신앙고백의 여지는 충분하며,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세상의 힘과 권세를 잡은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살펴볼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용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다락방 공과책입니다. 하지만 사권의교회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의 작은 마음만은, 이번에도 꼭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 다락방 공과를 통해, 사권의교회의 모든 다락방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다니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2025년 2월
여러분의 담임목사, 유병휘 드림

다니엘서 개관

:: 다니엘서의 장르 ¹⁾

기독교 전통에서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분류된다. 그러나 예언서들은 모두 첫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혹은 ‘누구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형식으로 시작하는 데 비해, 다니엘서의 첫머리는 예언자의 이름을 전혀 소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언서와 명확하게 구별된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나 시기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예언서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정작 예언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니엘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책들과 훨씬 더 공통된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다니엘서를 이러한 책들과 같은 묶음에 포함하며, 통상 이러한 묶음을 ‘성문서(成文書)’라고 부른다. 그러나 성경에서 다니엘은 에스겔과 호세아 사이에 놓여 ‘예언서’로 분류된다. 주후 4세기 사본인 바티칸 사본과 5세기 알렉산드리아 사본 모두에서 현재의 위치와 다르긴 해도, 다니엘서는 예언서들과 함께 배열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서를 어떻게 보는가가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를 가르는 여러 차이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다니엘서의 첫머리가 보여주는 특징은 다니엘서를 예언서보다 성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준다. 성문서에 속한 책들은 대체로 ‘하나님과 더불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룬다는 점에서, 성문서에 속한 다니엘서는 낯선 땅에서 어떻게 일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전하는 책으로 읽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다니엘서 자체가 스스로 어떻게 표현하는가와와는 별개로 초기 기독교 전통은 다니엘서를 예언서라 읽었고 그렇게 오늘날까지 전해왔다. 다니엘서는 이러한 기독교 전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점에서, 예언서로서의 다니엘서라는 성격 역시 결코 무시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읽는다는 것은, 현재의 현실은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현실임을 알리는 책 그리고 현재가 다가 아니라 다가올 새롭고도 놀라운 미래가 있음을 알리고 증언하는 책으로 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성문서로서의 다니엘서는 일상을 강조하고 예언서로서의 다니엘서는 미래를 강조한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어느 하나를 버릴 필요 없이 다니엘서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결론적으로는,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루는 책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다가올 궁극적 변화의 미래를 소망

하는 이들이 어떻게 일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다루는 책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다니엘서의 메시지 ²⁾

다니엘서는 주전 7-6세기에 걸쳐 살았던 다니엘의 신앙 무용담과 그가 받은 환상들과 묵시들로 구성되어 있다. 1-6장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유배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영적 무용담을 기록하고 있고, 7-12장은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시대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걸쳐 하나님께 받았던 환상을 기록한 것이다. 이 환상들의 배경은 세계 제국들의 연속적인 출현과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이며, 그 전경(前景)은 이 세계 제국들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는 영적 혈투와 항쟁이다. 1-6장이 교과서적인 승리주의 신앙을 노래한다면, 7-12장은 악의 제국과 맞서는 성도들의 저항과 그 과정에서 맛보는 패배와 쇠락, 극한 고난의 경험을 기술한다. 이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패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의명분이 지상 권력자들의 만행 앞에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곧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상이 펼쳐진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의 해석처럼, 다니엘서 7-12장은 주전 4세기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일어난 시리아 셀류키드 왕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을 박해한 것에 저항하여 일어난 유다 마카베오 항쟁(주전 167-164년)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가장 잘 해석된다. 그러나 이것은 다니엘서가 오로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유대교 박해와 유다 마카베오 항쟁이라는 역사적 배경 아래에서만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다니엘서의 최종 저작 배경으로 마카베오 항쟁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다니엘서에는 두 층의 주인공들이 등장한다. 주전 6세기경에 활동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첫 번째 층의 주인공들이다. 두 번째 층의 주인공들은 다니엘이 주전 6세기에 받았던 예언과 환상 속에 보았던 미래의 주인공들이다. 이 미래의 주인공들은 다니엘의 환상과 묵시가 성취되는 약 450년 후에 실제 역사 속에 활약한 주인공들이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다고 믿으며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주장한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1) 김근주, 『다니엘처럼』 (서울: 대장간, 2019), 13-14.

2) 김희권, 『하나님나라 신학으로 읽는 다니엘서』 (서울: 복 있는 사람, 2010), 15-25.

이 땅에서 맛보기 위해서는 성도의 견인(堅忍)이 요청된다(7-12장). 다니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믿음을 근거로 삼아, 역사로부터 도피하지 말 것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고 역사 안에서 준동하는 악과의 싸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 다니엘서의 이런 주장을 구현한 인물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에 잡혀 온 유다의 포로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방 세계 제국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박해를 감수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한다는 이야기다.

:: 다니엘서의 개요 ³⁾

1-6장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1장	유다의 젊은 포로들의 신앙적 절개와 단호한 결심
2장	제국의 안정에 대한 번뇌로 악몽에 시달리는 느부갓네살
3장	금 신상 숭배 요구와 그에 저항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4장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짐승으로 전락하는 세계의 제왕
5장	벽의 글자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다니엘
6장	사자 굴에 집어 던져지기까지 고난당하는 다니엘
7-12장 다니엘의 미래 비전	
7장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같은 이와 그의 백성
8장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과 가브리엘의 해석
9장	다니엘의 구국 참회 기도와 가브리엘의 환상 해석
10장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
11장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전쟁
12장	세상 끝 날과 죽은 자들의 부활

3) 김필희, “다니엘 개관,” 『묵상과 설교』 26 (2014): 40.

1과

바벨론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

📖 다니엘 1장 1-9절



- 1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삼 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 2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 3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 4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 5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삼 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 6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 7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 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 9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말씀나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젊은 나이에 나라를 잃고 새로운 나라 바벨론을 위해 살아가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나라를 잃은 상실감은 있었으나 바벨론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법 살만했던 그들이 느닷없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수상한 이유는 지금까지 이들은 철저히 바벨론화 되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언어도, 학문도 모두 바벨론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토록 무모한 결정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무모한 결정 속에 숨어 있는 ‘믿음’의 실체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습은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의 도구임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통용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번 공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믿음입니다.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인지, 순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다니엘서는 낯선 땅(바벨론)에 떨어진 믿음의 청년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은 바벨론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1:2)

2. 바벨론을 옛 지명인 ‘시날’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고. 창11:1-9)

3.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전해진 명령은 무엇입니까? (단1:3-4)

4. 바벨론의 왕립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던 네 명의 이스라엘 청년들은 어느 날 느닷없는 돌출 행동을 감행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1:8)

5. 왕이 내려준 식사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참고. 단11:26)

“You are what you eat.” - 루트비히 포이어바흐(Ludwig Feuerbach)

6. 이들은 왜 왕의 명령을 거부했을까요? (단1:8; 참고. 고전1:2)

7. 본문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단1:9-15)

묵상과 적용

1. 다니엘이, 왕이 내려주는 식탁을 거부하고 ‘채식주의’를 선택한 데에는, 그 순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분기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2. 다니엘의 선택을 지지하는 환관장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환관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속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니엘의 평소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기에 가까이 있는 불신자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니엘서는 이 세상의 악함을 핑계 대며 믿음과 신앙 양심을 더럽히는 일을 쉽게 받아들이는 우리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그 야성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결한 삶을 위한 ‘또 다른 식사 메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명령, 느부갓네살의 산해진미를 거부하면 굶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단1:8)
예) 세상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왕의 산해진미, 곧 세상의 부귀와 영화만을 추구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러다 결국 세상에 속한 ‘세상의 용병’으로만 살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뜻을 정하여’, 이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과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대답

📖 다니엘 2장 17-24절



- 17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 18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 19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 20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 21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 22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 23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 24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말씀나눔

스포츠 경기에서의 실력은 기술이 아닌 시야의 차이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축구를 예로 든다면, 동네 축구의 경우 운동장이 아무리 넓어도, 선수들이 공 주변에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죽어라 공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 선수들은 다릅니다. 공을 잡은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빈 공간을 찾아다니고, 갑자기 공을 반대로 길게 넘기면서 경기의 흐름을 전환시키기도 합니다. 이렇듯, 시야에 따라 경기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과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큼니다. 전자는 늘 좁은 시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작은 일에 목숨을 걸고 삶의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보는 사람은 작은 변화에 요동치지 않고 항상 여유가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상반된 자리에 있는 두 사람,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을 비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반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목숨이 달려 있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둘의 모습을 통해 멀리 보는 사람이 누리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짜 평안이 아닌, 멀리 있지만 진짜 평안을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면서

근심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러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느부갓네살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2:1)

2. 악몽에 시달리던 느부갓네살이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단2:5)

3.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일종의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켜, 국가 공무원으로 잘 지내고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한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이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 앞에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2:17-19; 2:28)

4.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 일시적인 평안을 되찾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단2:46),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합니다(단2:49).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2:47)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만도 한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도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아직도 그의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불신앙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불신앙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는 반면, 느부갓네살처럼 이런저런 은혜의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앙도 있습니다. 모두가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후자인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섬길 수만 있다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도 좋고, 30m 짜리 금 신상도 좋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보십시오. 결코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흔들릴만한 도전인데, 철저히 하나님께만 '올인'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무엇을 더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5. 느부갓네살은 지금 당장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것에 위로 받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가 붙잡아야 하는 영원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단2:34-35; 행4:11; 단2:44)

묵상과 적용

1. 다니엘은, 왕의 서슬 퍼런 명령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짜증 내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관장이나 시위대장 아리옥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2.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세상 나라가 전부인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처럼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두려움 속에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 나라에 목숨 거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세상 최고 권력자였지만 밤이 찾아올 때마다 형벌을 당했습니다. 번민과 두려움의 형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보십시오. 목숨을 언제 잃을지 모르는 포로 신세이지만 그에게 밤의 시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밤은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느부갓네살들이 두려운 마음을 품은 채 우리를 향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번민과 두려움의 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랴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단2:22)

예)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지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에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여전히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한 채, 절망과 좌절의 밤, ‘느부갓네살의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과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다니엘 3장 13-18절

- 13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 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 15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 17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 18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말씀나눔

다니엘서를 처음 읽은 성도들은 주전 2세기경(대략 주전 167년) 시리아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배자는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크스 4세인데, 대부분의 학자는, 당시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티오크스 4세의 정확한 이름은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Antioches Epiphanes)인데, 그리스어에서 '에피파네스'는, '유명한', '저명한', '혁혁한', '빛나는'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나는 안티오크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과는 달리 너무 잔인했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과 부하들은 그를 '에피파네스'라 부르는 대신에 '에피마네스'(Epimanes)라 불렀습니다. 그리스어 '에피마네스'는 '광포한 사람', '미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마 당시의 성도들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매우 강한 동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본문은 어떤 내용이기예, 이런 강한 동질감을 불러일으킨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어떻게 읽힐까요?

다니엘서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옛날, 머나먼 이야기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과를 통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격려, 도전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순원들과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닌, 그의 세 친구입니다. 이들에게 찾아온 신앙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단3:1, 6-7, 8-12)
2.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반응은 놀랍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3:17)
3. 이어지는 이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단3:18) 이와 같이 고백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4. 그다음 일어난 사건은 가장 충격적입니다. 이들을 찾아온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단3:19) 그 순간,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정말 후회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믿고 걸어온 것도 후회되고, 기도한 것도 후회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한 것도 후회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 3장 15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라도 너희가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했는데, “아, 그 때 그 말을 들을걸이라는 후회가 생기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5.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하고 있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단3:25)

묵상과 적용

1.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믿음의 가치를 평가해 보고,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질문해 봅시다.

2. 시편 139편 7-10절을 읽은 후 오늘 공과를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해 봅시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 고”(단3:25)

예)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아 니하실지라도’의 우려가 현실이 된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오늘의 고난이 너무 힘겨워 하나님이 없는 평안함을 추구할 때가 많았 습니다. 바벨론에서 승승장구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삶을 거부하는 믿음 주 시고, 비록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우리 가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4과

하늘에 닿는 나무는 없다



다니엘 4장 13-18절

- 13 내가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 14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 15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 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뿔을 얻으리라
- 16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때를 지내리라
- 17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 18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말씀나눔

지난 2016년에 개봉한 ‘물숨’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제주도 출신의 감독이 무려 7년 동안 우도의 해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따르면, 해녀 사회는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해녀 사회는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뉘어져서, 매우 엄격한 위계질서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경력이 아니라 ‘숨길이’라는 점입니다. 제일 높은 계급인 상군은 숨길이가 길기 때문에 보통 바닷속 15-20m까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제일 낮은 계급인 하군은 2m 이하의 바다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숨길이는 결코 노력과 연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슬프게도 그것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수영을 전혀 못 하는 사람이 연습을 하면, 하군의 수준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결코 연습으로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해녀들은 계급에 대한 부러움은 있을지언정 불만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군, 중군, 하군이라는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해녀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숨’입니다. 물숨은, 바다 밑에서 들이마시는 숨을 의미합니다. 해녀들이 작업을 할 때, 보통은 자신의 숨길이 만큼 숨을 참으면서 작업을 하다가 다시 숨을 쉬기 위해 물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고는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정해진 루틴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물숨입니다. 물 위로 올라가야 하는 그 순간, 눈앞에 큼지막한 전복이 보일 때가 있는데, 그 순간, 해녀가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물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해녀는 물숨을 먹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숨을 먹는 순간, 아무리 상군의 해녀라 하더라도 결국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고가 전문가들이 모인 해녀 공동체에서도 1년에 한 두 번은 꼭 일어난다고 합니다.

해녀들이 물숨의 위험성을 몰라서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어느 순간, 욕심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녀들에게 있어서 물숨은 곧 욕심입니다. 물숨은 마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의 ‘바다 버전’인 것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해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는 무서운 곳이지만, 욕심을 버리면 친절엄마처럼 다 내어 주는 곳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물숨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가 있음에도,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얻으려는 마음에 욕심과 교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공과는 ‘다니엘서의 물숨 이야기’입니다. 이 공과를 통해 어느 순간 우리를 찾아온 욕심과 마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숨의 유혹을 이기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면서

과한 욕심 때문에 낭패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습니까? 순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모든 것을 가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번민하며 깊은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4:5)

2. 느부갓네살을 괴롭혔던 꿈은 무엇입니까? (단4:14-15)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꿈을 당신이 아닌, 당신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 좋았던 나무, 온 세상 피조물들이 기뻐했던 그 나무, 하지만 어느 순간 너무 높이 자라서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했던 그 나무,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셔야만 했던 그 나무는 바로... ‘당신’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당신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3. 느부갓네살의 멈춤이 심판이 아닌 축복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4:15)

비록 나무는 잘리게 되었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르게 시작하기 위한 새출발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하늘에 닿으려는 높은 나무보다, 나무를 베고 난 뒤에 남은 밀동에 불과한 그루터기가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화려한 성공을 맛보는 인생보다,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인생이 훨씬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느부갓네살은 더 높은 곳으로, 하늘을 향해 더 높이 뻗어가는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 풍성함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어야 합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잃거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괜한 씨름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루터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4.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단4:36-30) 그가 그런 결단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묵상과 적용

1. '낮과 밤'은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누구에게나 밤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인생에서 밤을 맞이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 밤을 맞이하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태도는 너무나 상반됩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 때문입니다. 시편 131편 1-3절을 읽고, 여러분의 인생 태도를 결단해 봅시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 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단4:26)
예) 밤의 시간을 통해 그루터기를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이 찾아올 때마다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느부갓네살처럼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포기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욕심의 물숨으로 인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2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흠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4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5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

26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27 테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28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말씀나눔

오늘 공과는 느부갓네살의 정치적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벨사살도 느부갓네살처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보았으면서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모습이고, 둘째는 모두 다 알면서 그 길로 가는 모습입니다. 벨사살은 두 번째 모습의 전형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 ‘기억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에 최고로 적합한 곳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 속도감 등에 취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단기간에 휘발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벨사살의 길이 아니라, 기억하는 다니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개인과 가정, 교회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이 주최하는 큰 잔치로 시작됩니다. 이 잔치의 특징을 이야기해 봅시다 (단5:1-4).
2. 우리가 이런 모임에 익숙해지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5:3-4; 참고. 롬12:1-2)
3. 느부갓네살에게 찾아왔던 ‘밤의 시간’은 벨사살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가 꿈속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단5:25-28)

벨사살에게 전해진 말씀과 말씀이 전해지는 방식은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것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다르게 벨사살은 모든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행했다는 점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단5:22)

벨사살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벨사살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벨사살은 알았지만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한 것처럼,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이 행동했지만, 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

1. 벨사살은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역사 문맹자’였습니다. 그를 칭송하는 수많은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화려함에 속아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말씀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2. 벨사살의 주변에는 어떻게 해서든 벨사살 왕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다니엘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단5:17).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55장 6-7절을 함께 읽고, 오늘 공과를 통해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단5:22)

예) 역사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낮과 밤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선포되기 전에 돌이키게 하옵소서. 돌이킬을 미루고 또 미루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6과 바로 지금입니다

다니엘 6장 6-10절



- 6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 7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 8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폐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 9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 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나눔

사람의 인생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마디 말을 통해, 하나의 행동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내려주는 산해진미를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이 바벨론의 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 안에는 정체성에 대한 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공과는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든 다니엘이, 모든 것을 걸고 결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단 한 번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은 아닙니까?

들어가면서

큰 어려움과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경험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시간은 흘러 바벨론의 시대는 가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은 놀랍습니다. 페르시아에서의 다니엘은 어떤 모습입니까? (단6:1-4) 그리고 이 모습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믿음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며, 허무한 고백을 줄기차게 하는 분들,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면, 세상과의 타협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만들어 내는 삶, 사랑이 만들어 내는 삶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직속상관인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의 마음도, 다리오 왕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 마냥, 이 세상에서는 절대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믿음을 선불리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 80세가 넘는 나이에 한 나라의 넘버 3까지 오른 다니엘은, 은퇴준비가 아닌 엄청난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6:4-9)

3.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30일 기도 금지법'이 왜 다니엘에게 시험이 될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4. 다른 이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물어봅시다.

5.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하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단6:10)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묵상과 적용

1. 30일, 딱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우발적 행동이 아닌, 어린 시절부터 축적된 ‘거룩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위기의 순간,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으심’은 서재가 아닌 기도의 골방에서 설교자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보화이자 성령이 주시는 달콤한 힘입니다. 그것은 잉태시키고 채우며 부드럽게 하고 스며들게 하고 잘라 내고 위로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말씀이 되게 합니다. 그것은 위로를 주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 드러내는 말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합니다. 청중을 죄인으로 혹은 성도로 만들며, 어린아이처럼 울고 거인처럼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봄이 오면 새싹이 돋듯 청중의 마음이 자연스레 열리도록 합니다.

- E.M 바운즈, 『기도의 능력』

2. 다니엘과 같은 고위직 공무원이 자신 앞에서 펼쳐지는 판세를 읽지 못할 리는 없습니다. 30일만 기도를 멈추고 눈앞에 있는 총리 자리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지키며 목숨마저도 잃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다니엘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다니엘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다니엘의 80년 인생 중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감독님, 감독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국가대표 때였나요?
저는 지금입니다!”

- 강백호, 『슬램덩크』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6:10)

예) 절망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가 능력임을 믿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극한의 순간,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자 결단했던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믿음과 순종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과

짐승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



📖 다니엘 7장 1-14절

- 1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리 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 2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 3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 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 5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 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 7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 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 9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 10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 11 그 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

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 12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 13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씀나눔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6장이 1부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7-12장이 2부입니다. 1부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주는 역동적인 신앙의 무용담이었다면, 2부는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2부의 이야기는 1부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그 일이 있을 당시 다니엘은 이런 환상을 보았다, 라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다니엘이 어떻게 매 순간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말씀)에 사로잡혀 더 크고 넓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세상과는 다른 문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믿음의 동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믿음 너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공과를 통해 다니엘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바라본 비전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실의 삶에서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가면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행했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소개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단7:3)

2. 첫 번째 짐승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이 모습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단7:4)

3. 두 번째 짐승의 모습과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단7:5, 17)

4. 세 번째 짐승의 모습과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단7:6)

5. 네 번째 짐승의 모습과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단7:7-8)

6. 이 짐승들이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참고. 계13:1-3)

7. 다니엘이 본 또 다른 환상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7:13; 참조. 단7:9; 계1:13-14)

예수님은 자신을 항상 '인자(人子)'라고 부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의 '신성'과 대비되는 '인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이라는 표현으로서, 다니엘 7장 13-14절에 등장하는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 표현에 근거하여, '인자'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신적 존재)를 표현하는 성경 언어입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 인자(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시는 새로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단7:13; 계1:7). 그 분께서 짐승의 나라를 파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묵상과 적용

1. 이 세상을 ‘짐승의 나라’로 표현하는 성경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2025년,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짐승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 다니엘은 짐승의 나라는 무너지고 ‘인자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자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주는 각오와 결단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단7:14)
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짐승의 나라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짐승의 유혹과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라지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림의교회가 그 영원한 나라를 이 세상에 소개하고 반영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8과 성도의 노래



📖 다니엘 7장 23절 - 8장 4절

- 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 24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 25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 26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 27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 28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 1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삼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 2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 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에서이니라
- 3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 4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말씀나눔

미국의 소설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이라는 책에 수록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이의 생일날, 불의의 교통사고로 아이를 떠나보낸 어느 부부가 매우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빵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빵집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제대로 드시지도 못했겠죠. 제가 만든 따뜻한 이 롤빵을 좀 드시죠. 뭘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럴 때 뭘 좀 먹는 일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겁니다.”

부부는 건네주는 빵을 먹으며 빵집 주인의 고단한 일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시나마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아픔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통찰력(insight)을 가져다줍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믿음의 경주는 100m 시합보다는 마라톤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눈앞에 보이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멀리 보고 인내하며 일상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공과를 통해 '짐승의 나라 vs. 인자의 나라'의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한 순간에 끝나는 단기전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승리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공과는 바로 그 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승리를 확신한다면, 괜히 흥분해서 믿음의 경주의 페이스를 잃지 말고, 오늘의 일상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라고 격려합니다. 이 공과를 통해 여전히 이런저런 짐승들이 기생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결국 그 나라가 승리할 것입니다.

들어가면서

누군가의 작은 말과 행동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까? 순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짐승 환상에 이어, 다니엘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단8:3-4)
2. 막강해 보이던 숫양도 한순간이 무너집니다. 그를 무너뜨린 대상은 누구입니까? (단8:5)
3. 숫양과 숫염소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단8:20-21)
4. 본문에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짐승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8:4)
5. 짐승과 비교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열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참고. 계18:10; 21:2)
6.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짐승의 강력한 모습에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은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단7:28; 8:27)
7.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요동치던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단7:25; 참고. 계12:6; 12:14; 골1:24)

묵상과 적용

1. 세상의 짐승은 더욱 진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온 짐승의 업그레이드 버전, ‘숫양과 숫염소’는 무엇입니까?

2.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견디고 버텨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인내의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까?

“사고 후 2년쯤 지나자 ‘사고를 당한 피해자’로만 나를 규정하고 싶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 피해자로만 살진 않았으니까. 그때부터 ‘사고를 만났다’고 썼다. 그 순간부터 계속 사고와 헤어지기 시작했다. 그 일은 더 이상 나를 대단히 괴롭힐 수 없다는 태도로! ...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있을 거다. 동화 속 이야기처럼,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같은 엔딩은 아닐지라도, 내 계획과는 다른 삶일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분명히 괜찮은 해피엔딩을 맞을 거라는 기대를 놓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결코 혼자 계시지 말 것. 누군가와 슬픔도 아픔도 함께 나누면서 사고와 잘 헤어지시기를 바란다. ‘그게 될까’ 싶을 때면 저를 잠깐 더 올려봐 주시라.”

- 이지선 교수, <꽤 괜찮은 해피엔딩>의 저자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단7:25)

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한 때와 두 때, 반 때의 훈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더욱 정금같이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인내해야 하는 시간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 오늘 하루의 일상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극한의 상황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9과 이런 기도자 어디 없습니까?



다니엘 9장 17-19절

- 17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며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 18 나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 19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말씀나눔

제임스 패커는 기도를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Through Duty to Delight)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팀 켈러도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의 시작은 막막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그만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의 시작은 무거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감정의 노예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의무를 실천하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치 조율이 완벽하게 된 악기로 연주하는 것과 같은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는 의무를 통해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공과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힘을 얻습니다. 그에게 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짐’은 없었습니다. 동시에 ‘기도해도 소용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오늘 공과에 드러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힘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가면서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관찰 및 생각하기

1. 다니엘이 기도에 전념하던 때는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단 9:1; 참고. 단6:6-7)
2. 다니엘의 기도를 격려한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단9:2)
3. 다니엘은 두 가지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은 무엇입니까? (단9:3-4)
4. 다니엘의 기도에는 ‘회개’가 담겨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9:5-6; 참고. 시51:11-12)

죄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완전히 빼앗아 버립니다. 성도가 이런 상태가 되면 일상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이 즐겁지가 않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성도는 평생 이런 상태로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는 성도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통해 구원의 기쁨, 성령이 함께하시는 든든함,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다니엘이 드린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9:18)

묵상과 적용

1. ‘다니엘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특징을 통해 나는 과연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봅시다.
2. 본문이 다니엘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다니엘은 이제 곧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9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된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봅시다.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 아닙니까?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단9:18)

예) 오직 주의 긍휼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회개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 축복만을 구했던 나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회개를 통해 가장 큰 선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5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16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7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18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나눔

최초의 한국인 메이저리그 선수였던 박찬호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은퇴를 선언하며,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팀에서 내 입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처지, 위치가 이런 것 같아서, 서운하고 서글펐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전성기 시절, 그는 팀 내에서 입지가 탄탄했습니다. 구단이 반대해도 국가대표로 헌신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순간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쟁을 통해 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오늘 공과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나의 소망을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서러웠던 순간이 있습니까? 순원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다니엘은 갑작스럽게 자신의 슬픔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10:1-2)

2. 당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의 복귀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다니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바벨론화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니엘은 마치 불이 난 집에서 아이들을 모두 구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려는 아버지처럼, 사고 현장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는 소방관처럼, 침몰하는 배에서 학생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했던 어느 선생님처럼 여전히 페르시아(바벨론)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3. 이런 다니엘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그리고 다니엘을 향해 어떤 사명을 부여하십니까? (단10:11)

4. 복잡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대해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단10:19-20)

묵상과 적용

1.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다니엘의 사랑은 압권입니다. 모두가 자기 살길만을 찾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모든 것을 걸고 민족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토록 사랑한 대상이 있습니까? 교회와 민족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봅시다.

2. 힘겨운 현실에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아, 강건하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공과를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솟아난 다짐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단10:19)

예) 힘겨운 순간에도, 강건하라 말씀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교회와 민족, 열방을 위한 기도예 소홀했던 우리의 이기심과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다니엘처럼 공동체(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과 다니엘의 글로리

📖 다니엘 11장 27-32절



- 27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행동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 28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 29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 30 이는 깃딤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 31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 32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말씀나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쓴 김은숙 작가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현실적인 보상보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더라. 사과로 얻어지는 게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았다. 피해자들은 사과로,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되찾고 싶었던 거였더라. ... 폭력의 순간은 인간의 존엄성, 명예와 같은 것을 완전히 잃게 된다. 사과를 받아 내면서 비로소 원점이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원점이 되는 상태가 더 글로리인 것이다.”

드라마에 나오는 상당수 가해자의 글로리는 약자들을 괴롭히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자의 글로리는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추구하는 인생의 글로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공과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글로리와 다니엘이 추구했던 글로리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글로리는 왜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달랐을까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달랐을까요? 이번 공과를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떤 글로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웠을 때는 언제입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다음의 글을 읽고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 봅시다.

본문은 B.C 303년부터 시작된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큐스 왕조의 150년 전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그토록 강성했던 페르시아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거칠 것 없었던 알렉산더 대왕도 33세의 나이에 갑자기 요절합니다. 이후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이 4개의 왕조 중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왕조는 남쪽의 애굽을 다스리던 프톨레미 왕조와 북쪽의 시리아를 다스리던 셀류큐스 왕조였습니다. 본문에서 남방 왕으로 지칭하는 나라가 바로 프톨레미 왕조이고, 북방 왕이라고 지칭하는 나라가 셀류큐스 왕조입니다.

본문은 이 두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실제 역사도 그랬습니다. 끝없이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싸우다 지쳐서 6월에 있는 말썸처럼 정략결혼을 통해 화친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기도 했지만, 결국 배신에 배신을 거듭하며 또다시 큰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런 전쟁의 역사가 무려 15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전쟁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나라가 있었는데, 다른 아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모두 이스라엘을 통해 전쟁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2. 땅의 전쟁이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다니엘은 무엇에 주목하고 있었습니까? (단10:20; 11:1)

3.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큐스 왕조의 전쟁을 종식시킨 인물은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성경은 그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단11:21, 28)

“이스라엘 방방곡곡에는 클 슬픔이 넘쳐, 지도자와 원로들이 탄식을 하고 처녀 총각들은 기운을 잃었으며,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간 곳이 없었다. 신랑들은 슬픔에 잠기고 신부는 신방에 앉아서 탄식만 하였다. 온 땅은 주민들이 슬픔으로 초상집같이 되었고 야곱의 집은 온통 수치로 뒤덮였다.”(마카비상 1장 25-28 절, 외경)

4. 다니엘은 인내하는 것을 넘어 세상과 맞서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의 다니엘서 묵상을 통해 ‘다니엘의 저항’의 도구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단11:32)

묵상과 적용

1. 다니엘의 첫 번째 글로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in the world),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not of the world).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2. 다니엘의 두 번째 글로리는 ‘시험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싸움으로 인한, 인내와 소망의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습니까?
3.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신이 아닌 예수님만을 경배하기로 결정할 때, 세상은 가장 큰 모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실한 예배자입니까?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단11:32)
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사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급변하는 세상의 물결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상하고 존귀한 다니엘의 글로리가 우리의 글로리, 사림의교회의 글로리가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2과 다음 다니엘

📖 다니엘 12장 1-13절



- 1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 2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 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 4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 5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 6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나 하더라
- 7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만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 8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 9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 10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 11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천 이백구십 일을 지낼 것이요
- 12 기다려서 천삼백삼십오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 13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말씀나눔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엄석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본래 독립군이었지만 어느 순간 조국을 배신합니다. 영화 속에는 한 때 그와 동지였던 이들이 엄석진을 향해, 왜 그랬냐고, 왜 동지를 배신했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엄석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기에 엄석진은 조국을 배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지들은 알았기에, 지조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는 마침내 임할 하나님 나라를 알았기에,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공과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마치지만, 그는 우리를 향해, 여러분이 이제 ‘다음 다니엘’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다니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림의교회가 이 땅의 다니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바로 ‘다음 다니엘’입니다.

들어가면서

지난 한 한기 공과를 돌아봅시다. 가장 도전이 되었던 다니엘서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랬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다니엘은 구약의 인물이었음에도 신약의 사람들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단12:2)

2.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단12:3)

저는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큰 유익을 누렸습니다. 마치 다니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고, 다니엘에게 심방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때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저를 향해 다니엘은 더 나은 삶을 소망하라고,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라고, 호통쳤습니다. 사자굴에서조차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를 보라, 유 목사, 주님이 함께하시면 사자굴도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지난 12주 동안 다니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다니엘 덕분에 더욱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3. 본문이 다시금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12:5-7; 참고. 뱀전4:12)

4. 인내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는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단12:8)

5.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의 마지막 격려는 무엇입니까? (단12:13)

묵상과 적용

1. 마지막을 아는 것(믿는 것)과 모르는 것은 삶 속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사망의 종노릇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을 알고 있는 지식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2. 하나님은 오늘도 ‘다음 다니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교회에서 다니엘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을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그리고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사랑하는 순원들에게 고백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은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단12:13)

예) 마지막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믿고 평안과 감사로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죽음의 순간에서도 부활의 신앙으로, 넘어져도 일어나는 오뎅이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알았으나 몰랐던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귄의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Lined area for writing or drawing, consisting of 20 horizontal lines.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사귀는

사귀의
교회